



공중 충돌!

8일 오후 서울 삼양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하나은행 FA컵 준결승전 수원 삼성과 고양 국민은행과의 경기에서 수원의 마토와 고양의 고민기가 공중충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국민은행 꺾고 결승 선착

FA컵 준결승 실바·백지훈 연속골...2대0 제압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이 실업축구 N리그 고양 국민은행을 누르고 FA컵 결승에 올랐다. 수원은 8일 마포구 삼양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전반 45분 용병 실바의 선제골과 후반 45분 백지훈의 추가골로 국민은행을 2-0으로 제압했다. 수원은 다음 달 3일 상암에서 2002년 이후 4년 만에 대회 정상에 도전한다. K-리그 플레이오프에도 오른 수원은 시즌 2관왕을 노리게 됐다. '두 마리 토끼'를 쫓았다면 차범근 수원 감독은 김남일, 송종국, 이관우, 백지훈 등 국

내 최강의 허리 진용과 용병 올리베이라, 실바, 마토를 죄다 투입했다. 그러나 K-리그에서 밀려난 설움을 딛고 오기로 팔팔 뭉친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국민은행의 저항은 거셌다. 전반 3분과 16분 김요환의 헤딩슛으로 공격의 포문을 연 국민은행은 격렬한 몸싸움과 태클로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혔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골문은 실바의 논스톱슛에 뚫렸다. 전반 45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이관우가 올린 크로스를 올리베이라가 다이빙 헤딩으로 연결하자 실바는 골키퍼 김태영을 앞에 두고 몸을 띄워 강력한 발리슛으로 네트

를 갈랐다. 수원은 후반 김남일, 이관우를 빼고 김진우, 테니스를 투입해 페이스를 조절했다. 국민은행은 후반 19분 최정민의 백헤딩슛으로 골문을 위협하고 베테랑 김종현, 김기종 등을 교체 투입해 반격에 나섰다. 수원의 노련한 수비진을 뚫기에는 창끝이 예리하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후반 35분 수비수 최정민이 공중볼을 다루다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수원의 백지훈은 후반 45분 교체 멤버 이현진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어 올린 크로스를 문전 정면에서 침착하게 멈춰 세운 뒤 골문 오른쪽 상단으로 가볍게 인사이드 슛을 꽂아넣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상에 이런 일이...” 시리아팬 ‘물지각’ 기싸움

전북 현대팀 숙소앞 나팔 동원 밤샘 소란  
경찰도 뒷집... 잠못 든 전북 선수단 분통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을 치르기 위해 시리아 홈스에 머물고 있는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우려했던 일이 일찌감치 벌어졌다. 상대인 알 카라마의 홈 팬들이 전북 선수단 숙소인 사피르 호텔 앞에서 선수들의 잠을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는 8일 오후 7시(이하 현지시간)에 열렸는데 알 카라마 열성 팬 300여명은 7일 밤 8시부터 호텔 앞에 모여들더니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북과 나팔을 동원해 응원 구호를 외치고 노

래를 불렀다. 자정까지 그칠 기색을 보이지 않은 이들의 소란은 가뜩이나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작스런 소란에 놀란 전북 관계자들은 호텔 측을 통해 현지 경찰에 해산 조치를 요청했지만 출동한 경찰도 전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함부로 군중을 건드리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진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선수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경기력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이철근 전북 단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테러나 마찬가지다. 상대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상태에서 경기를 하도록 배려하는게 홈팀의 예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남북 “결승서 다시 붙자”

아시아청소년축구 16년만의 재회 기대  
오늘 인도서 각각 일본·요르단과 준결승

‘결승서 다시 붙자. 16년 전 그랬던 것처럼.’ 나란히 2007 세계청소년(U-20)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낸 19세 이하 남북한 청소년축구대표팀이 각각 일본과 요르단을 상대로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청소년대표팀은 9일 오후 7시30분(이하 한국시간) 인도 콜카타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준결승을 치른다. 조동현 감독이 지휘하는 북한 대표팀은 세 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결승 티켓을 노린다. 남북 모두 승리하면 12일 오후 10시30분 열릴 결승에서 만난다. 이 대회에서 남북이 맞붙는 건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지난 1990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도 결승에서였다. 한국은 0-0으로 승패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겨 우승컵을 안았다. 이미 결승 진출로 남북 모두 1991년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는데, 세계대회에는 ‘코리아’라는 단일팀으로 출전해 8강까지 올랐다. 16년 만의 재회 기대는 크다. 일단 조별리그 3전 전승 포함, 파죽지세로 4강에 오른 한국은 대회 3연패 및 통산 12번째 우승 전력으로 전혀 손색 없다. 물론 준우승만 다섯 차례에 그쳐 대회 첫 우승 욕심을 품고 있는 걸끄러운 상대 일본과 맞대결은 늘 전력 외 변수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8강까지 치른 4경기에 서 팀 최다 득점(15골) 및 최소 실점(1실점)을 기록했을 만큼 공수 전반에 걸쳐

짜임새가 돋보였다. 특히 4골을 넣은 신영록(수원)을 비롯해 심영성(제주)과 이상호(울산), 송진형(서울)이 각각 3골씩을 보태는 등 언제 어디서 터질 지 모르는 가공할 득점력은 우승 희망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1976년 이란과 공동 우승 이후 30년 만에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북한은 지난 대회 준우승팀 중국이 아니라 이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른 요르단을 상대하게 돼 오히려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에 0-3으로 패해 A조 2위로 8강에 오른 요르단은 비록 중국을 2-1로 눌렀지만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수월한 상대라는 평가다. 북한은 일본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0-2로 패했으나 이란을 5-0으로 대파했고, 8강에서도 이라크를 2-0으로 꺾었다. 이번 대회에서 팀이 넣은 8골 중 3골을 터트린 미드필더 김금일과 2골을 넣은 공격수 정철민의 활약이 4강행의 밑거름이 되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축구 컵대회

6강 플레이오프  
우승팀 가린다

내년부터 프로축구 컵대회가 조별리그를 치른 이후 6강 플레이오프 프로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2개 팀은 조별리그는 참가하지 않고 각조 1, 2위 4팀과 함께 6강 플레이오프로 직행한다. 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열리는 2006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 전북 현대와 알 카라마(시리아)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8일 시리아 홈스를 방문한 김원동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컵대회 진행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실업축구 내셔널리그(N-리그) 우승팀 한 팀이 K-리그로 승격해 총 15개 팀이 K-리그를 치르는데 AFC

내년부터 운영방식 바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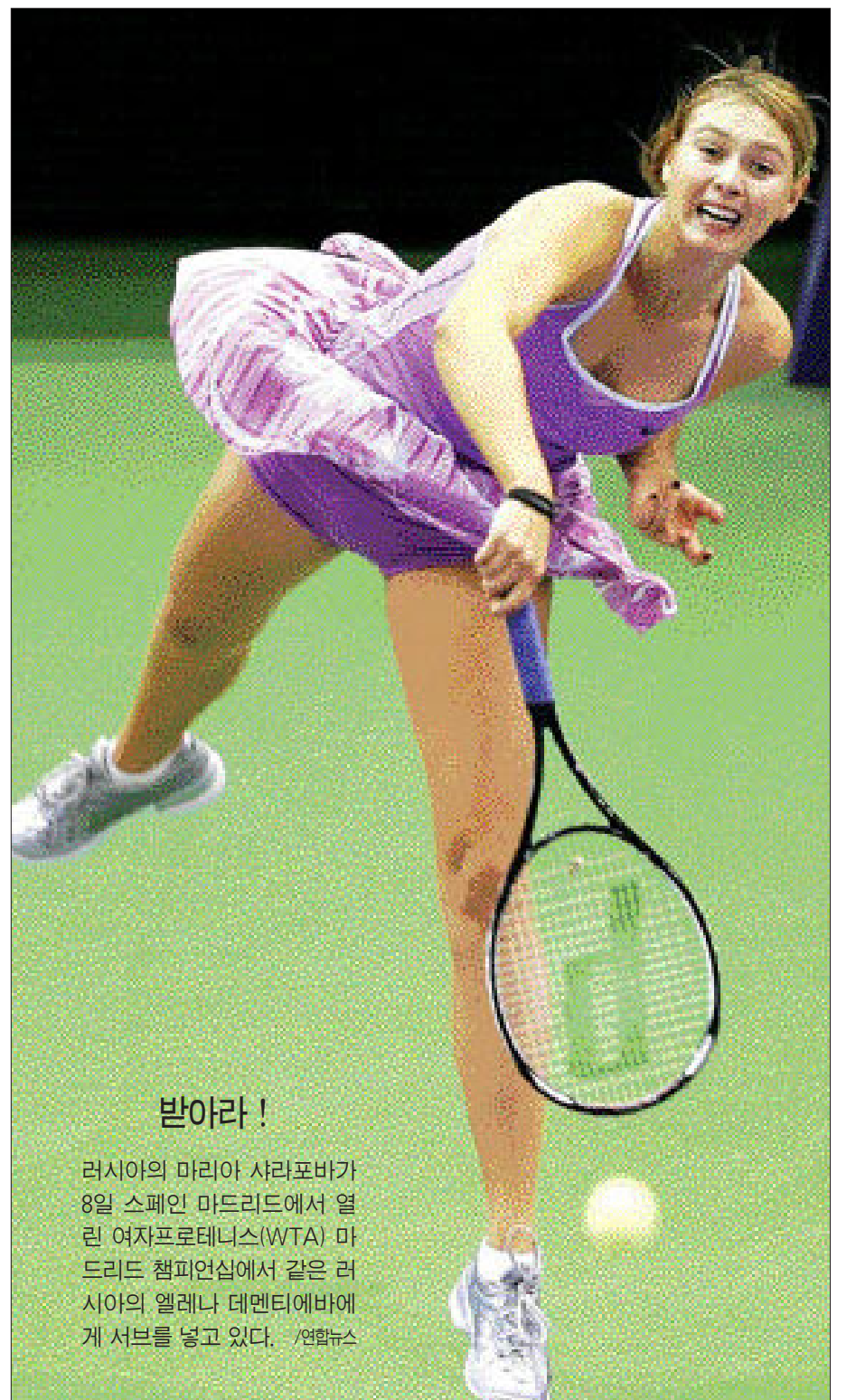
13개팀 2개조 조별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출 2팀을 제외한 13개 팀이 6개, 7개 등 2개 조로 나뉘어 컵대회 조별리그를 치른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조를 배정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총장은 “현재 권역별로 조를 나누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객관적으로 전력이 강한 수도권 팀들이 한 조를 이루게 돼 불만도 많겠지만 팬들에게 일찌감치 ‘빅매치’를 선보이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을 컵대회 조별리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전북과 울산이 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며 빽빽한 일정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를 배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2009년부터는 AFC 챔피언스리그 시스템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처럼 바뀔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록 팀들이 출전 티켓을 많이 가져가고 상금도 현재의 5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이다.

아계임 축구대표팀 23일 UAE와 평가전

도하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평가전을 갖는다. 대한축구협회는 펠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UAE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UAE와 실전을 치른 뒤 도하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베어백 감독은 15일 테헤란 원정으로 이란과 아시안컵축구 예선전을 치르고 국내로 돌아와 오는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올림픽축구대표팀 친선경기를 지휘한 뒤 UAE에서 현지 훈련 중인 대표팀에 합류한다. UAE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1위로 아시안게임에서는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A조에 속해있다. 한국은 UAE와 역대 A매치 전적에서 7승5무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지난 1일 아브카르투호의 중동 전지 훈련 당시 평가전에서 0-1로 진 적이 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바레인, 바레인과 B조에 편성된 한국은 오는 28일 밤 방글라데시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현재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빠져 올림픽축구 한일전 출전 명단에 포함된 박주영(서울), 백지훈(수원), 오창은(대구), 정성룡(포항) 등은 소속 팀이 K-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지 못할 경우 두바이 전지 훈련과 평가전에 참가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받아라!

러시아의 미리아 사리포버가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마드리드 챔피언십에서 같은 러시아의 엘레나 데멘티예바에게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